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數) 표현에 대한 대조 연구

Li Weiwei* · 이선웅**

|| 차례 ||

- I. 서론
- II.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사 체계와 수 표현 체계
 - 1.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사 체계
 -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 표현 체계
- III.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 표현 대조
 - 1. 한국어와 중국어의 정수 표현(整數表現) 대조
 -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서수 표현(序數表現) 대조
 - 3. 한국어와 중국어의 개략수 표현(概略數表現) 대조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한·중 수 표현 대조를 통해 정수 표현, 서수 표현, 개략수 표현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수 표현은 수사에 의해 표현되는 수량 범주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수사와 수 표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수사 체계에 포함시켰는데 본고는 수사와 수 표현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수사 체계와 수 표현 체계를 나누어 고찰하였다. 수사의 구성에 주목하여 수사 체계를 구축하였고 수사를 사용하여 특정한 수량 범주를 표현하는 것을 수 표현으로 분류하여 수 표현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중의 수 표현 체계에는 정수 표현, 서수 표현, 개략수 표현을 포함한다. 각 범주에서 한·중의 표현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중의 정수 표현에서는 중국어에는 보조수사 ‘零(0), 兩(2)’이 있는 등 한국어와 다소간 차이점을 보였다. 서수

* 제1저자, 경희대학교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표현에 있어서는 ‘수사+명사’의 방법으로 양수와 서수를 모두 나타낼 수 있음을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확인하였다. 개략수 표현에 있어서는 한국어보다 중국어의 개략수 표현 방법이 더 다양하다. 본고는 표현론적 관점에서 한·중의 수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여 중국인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도 충실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한국어, 중국어, 수사, 수 표현, 언어 대조

I. 서론

본고는 한·중의 수 표현 대조를 목적으로 한다. 수 표현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수 표현보다는 수량 표현¹⁾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수량 표현은 말 그대로 수량 의미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언어학에서의 수량 표현은 문장 안에 수량을 의미하는 언어 요소가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수량은 수사(한국어에서는 ‘수관형사’ 포함)로 표현되는데, 수사 외에 일부 접사, 부사, 명사도 수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때의 ‘양(量)’은 수(數)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결국 ‘수 표현’이 ‘수량 표현’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사 체계에서는 수사와 수 표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해 왔다. 수사와 수 표현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정수(不定數)와 서수(序數)는 단순히 수사라고 하기 보다는 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예를 들어 부정수 ‘한달’은 수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부정수 ‘100 이상’과 같은 말은 수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고는 수사와 수 표현을 구분하여 기존의 수사 체계를 다시 살펴볼 것이다.

1) 한국어에서의 수량 표현은 일반적으로 수사, 분류사, 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수량사구’에 의해 실현된다. 강창석(2009)에서는 數를 나타내는 단어는 ‘數詞’, 量을 나타내는 단어는 ‘量詞’라고 부른 바 있다.

한국어 수사는 일반적으로 양수사와 서수사로 분류하고 각각 정수(定數)와 부정수(不定數)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어에는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라는 두 계통이 존재하며 각각의 사용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어의 한자어 수사는 중국어 수사에서 비롯되지만 그 용법과 특성이 현대 중국어 수사와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어의 수사 체계는 한국어와 다르다. 중국어 수사는 수사의 구성에 주목하여 분류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계수사(系數詞), 단위수사(單位數詞)²⁾, 서수사(序數詞), 개수사(概數詞)³⁾ 등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한·중의 수사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중의 수사 체계 대조가 쉽지 않고 선행 연구도 많지 않다.⁴⁾ 자세히 보면 이러한 수사 체계는 수사와 수 표현 사이를 넘나들며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의 수 표현을 대조하기 위해 수사 체계와 수 표현 체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한·중 수 표현을 대조하기 전에 미시적 관점에서 수사의 구성에 주목하여 한·중의 수사 체계를 먼저 재구축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한·중의 수 표현 체계를 재구축하고자 한다.

2) 계수사와 단위수사는 중국어의 문법 용어이고 수사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예를 들면 숫자 ‘십오’는 단위수사 ‘십’과 계수사 ‘오’를 조합하여 만든 것이다.

3) 중국어 논의에서의 ‘개수사(概數詞)’는 한국어의 ‘부정수’와 거의 같은 것이다. 개수는 ‘개략적인 수’라는 점을 강조한 용어이고, ‘부정수’는 ‘확정되지 않은 수’라는 점을 강조한 용어이다. 그러나 두 용어의 외연은 같다. 본고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략수’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한다.

4) ‘수사 대조, 수량 표현 대조’와 같은 제목을 가진 선행 연구가 많지만, 거의 기존 수사 체계에서 수사만 대조하거나 ‘수사, 분류사, 명사’로 이루어지는 수량명사구를 대조하는 것이므로, 수사와 수 표현을 구분하는 체계에서 수 표현을 대조하는 본고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리우완잉(2014)에서 한국어 한자어 수사만 다룬 것도 본고와 차이가 있다.

Ⅱ.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사 체계와 수 표현 체계

1.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사 체계

한국어 수사는 일반적으로 양수사(量數詞)와 서수사(序數詞)로 분류하고 각각 정수와 부정수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에는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 두 가지 계통이 존재하며 각각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

한국어 수사 체계에 관하여 주로 최현배(1937/1971), 남기심·고영근(1993), 서정수(1996), 구분관 외 4인(2015)의 분류 체계가 인용되어 왔다. 이들 논저에서는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였으나, 모두 수사를 먼저 양수사와 서수사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로 나누거나 정수와 부정수로 나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달리 김성규(1984)에서는 ‘기본수(基本數)’와 ‘환위수(換位數)’의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어 수사를 분석하였다. 김성규(1984)의 수사 체계는 최근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수사의 구성에 주목하여 나누어서 수사의 구성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중국어 수사 체계에 관한 논의에서도 方緒軍(2000)과 李玟雨(2001)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계수사, 단위수사’와 같은 범주가 설정되어 있다. 계수사는 기본수와, 단위수사는 환위수와 같은 의미로 본다. 그러므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를 위하여 김성규(1984)의 수사 체계에 따라 한국어의 수사 체계 및 그에 속하는 수 표현을 <표 1>과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표 1> 한국어의 수사 체계

분류	계통	내용
기본 수사 ⁵⁾	고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한자어	영(零),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단위 수사 ⁶⁾	고유어	없음
	한자어	십, 백, 천, 만, 억, 조, 경
조합수사(組合數詞) ⁷⁾		십오, 이십오, 백오십, 삼백오십오, ...

중국어의 수사 체계에 관한 본격적인 학술 논저로는 方緒軍(2000), 李玟雨(2001), 劉月華(2004)의 분류 체계가 주목된다. 方緒軍(2000)의 분류는 수사의 구성 요소인 계수사, 단위수사, 기타 수사로 분류하였고, 李玟雨(2001)는 수사의 구성 요소 외에 서수사와 개수사(부정수)를 포함시켰고, 劉月華(2004)의 분류는 정수(整數)⁸⁾, 분수(分數), 소수(小數), 배수(倍數), 서수(序數)로 나누었다. 여기서 계수사와 단위수사는 김성규(1984)에서의 ‘기본수(基本數)’와 ‘환위수(換位數)’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어도 역시 수사 체계를 <표 2>처럼 구성할 수 있다.

<표 2> 중국어의 수사 체계

분류	내용
기본수사	零,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0~9)
단위수사	十(십), 百(백), 千(천), 萬(만), 億(억), 兆(조)
보조수사(輔助數詞) ⁹⁾	零(0), 兩(2)
조합수사(組合數詞)	十五(15), 二十五(25), 一百五十(150), ...

- 5) 본고에서는 중국어 논의에서의 ‘계수사’와 한국어 논의에서의 ‘기본수’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기본수사’로 사용하기로 한다.
- 6) 본고에서는 한국어 논의에서의 ‘환위수’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위수사’로 사용하기로 한다.
- 7) 본고에서는 ‘기본수사’와 ‘단위수사’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수사를 ‘조합수사’로 부른다.
- 8) 여기의 ‘정수(整數)’는 ‘부정수(不定數)’와 대응되는 ‘정수(定數)’가 아니라 ‘소수, 분수’가 아니며 확정된 수를 중국어에서 ‘정수’로 불린다.
- 9) ‘보조수사’라는 용어는 李玟雨(2001)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명확한 개념 설명이 없었는데, 본고에서 수사의 구성에서 보조 역할로 사용된 것으로 정의한다. <표 2>에서 보듯이 보조수사는 중국에서 ‘零(0), 兩(2)’ 두 개만 있고 한국어에서는 보조수사가 없다.

이상과 같이 한·중의 수사 체계를 기존 논의를 종합해 제시하였다. 한·중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어에서는 어원에 따라 한자어 수사와 고유어 수사로 두 가지 계통을 나눌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고유어 수사는 숫자 1~99까지만 표현할 수 있으며 한국어 고유어 수사에는 단위수사가 없다.¹⁰⁾ 또한 중국어 수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보조수사가 있다는 것이다.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 표현 체계

수사의 구성에 주목하여 한·중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시야를 좀 더 확대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한·중의 수 표현 체계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수사를 사용하여 어떠한 수 범주를 표현하는지에 주목하여 수 표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한국어 수사 체계에 있는 서수사와 부정수를 서수 표현과 개략수 표현의 명칭으로 수 표현에 분류한다. 이 외에 정수(整數) 표현을 설정하려고 한다. 정수 표현은 확정된 수량이라는 점에서 ‘개략수’와 대립되며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양수를 나타내다는 점에서 ‘서수’와 대립된다. 따라서 수 표현 체계는 정수 표현, 서수 표현, 개략수 표현이 있으며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 표현 체계를 <표 3>, <표 4>와 같이 정리한다.¹¹⁾

10) 한국어 고유어 수사 중 ‘열, 스물, 서른’ 등은 ‘단위수사’로 착각할 수 있지만, 아래 (가), (나)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나)에서의 ‘삼’과 ‘십’은 곱하기의 관계에 있는데, 이것이 (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한국어 고유어: 서른하나 (기본수사+기본수사)

나. 한국어 한자어: 삼십일 (기본수사+단위수사+기본수사)

11) 익명의 심사자 중 한 분은 두 언어 간의 공통 요소인 한자어에 의한 수 표현의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대조언어학(contrastive

〈표 3〉 한국어의 수 표현 체계

분류	계통	내용
정수 표현	고유어	하나, 둘, 아홉, 열, 스물, 아흔아홉
	한자어	일, 이, 십, 십일, 백, 일조, ...
서수 표현	고유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흔아홉째
	한자어	제일, 제이, 제삼, 제구십구, ...
개략수 표현	고유어	한둘, 두셋, 서넛, 너댓, ...
	한자어	이삼, 오륙, 이삼십, 삼십여, 약 백, ...

〈표 4〉 중국어의 수 표현 체계

분류	내용
정수 표현	一(일), 二(이), 三(삼), 十五(십오), 二十五(이십오), ...
서수 표현	第一(제일), 第二(제이), 第三(제삼), ...
개략수 표현	兩三(이삼), 五六(오륙), 二三十(이삼십), ...

Ⅲ. 한국어와 중국어의 수 표현 대조

1. 한국어와 중국어의 정수 표현(整數表現) 대조

정수 표현은 확정된 수량이라는 점에서 ‘개략수’와 대립되며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양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수’와 대립된다.

linguistics)적 논의이다. 대조언어학은 유형적으로 다른 언어들 사이를 비교·대조하여 공통점보다는 주로 차이점을 기술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로서 대조언어학의 충실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유형론(linguistic typology)이 성립된다. 대조언어학의 주된 관점은 같은 의미(meaning)를 표현하는 데 두 언어가 어떻게 다른 형식(form)을 사용하는가를 살펴보는 표현론적(onomasiological) 관점이다. 한국 한자어 수 표현과 중국 한자어 수 표현의 형식을 비교·대조하는 것은 해석론적(semasiological) 관점의 연구로서 표현론적 관점의 연구보다 언어학적 의의가 적다. 한자어라는 것은 한국이 우연히 중국 옆에 있어 중국의 영향을 받으며 받아들인 특수한 범주이지 언어학적으로 꼭 대조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이다. 가령, 그리스어와 중국어의 수 표현 대조에서 한자어라는 범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한국어 고유어 정수 표현은 한 개 혹은 두 개의 기본수사를 순서대로 연이어 조합해서 만든다. 한국어 고유어 정수 표현은 1~99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고 99 이상의 수를 표현하려면 한자어 수사를 사용해야 한다.

(1) 가. 1개의 기본수사: 18개

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B: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나. 2개의 기본수사: 81개

열하나, 스물다섯, 아흔아홉

(1)에서 보듯이 한국어 고유어 정수 표현의 구성 방식은 아주 간단하며 그 유형은 크게 (1가)와 (1나)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가)처럼 1개의 기본수사로 나타나는 정수는 총 18개이다. (1나)는 (1가)의 B열 기본수사에 A열 기본수사를 더해 만들어진 정수로서 총 81개이다.

한국어 한자어 정수 표현은 고유어보다 그 구성 방식이 다양한 편이다. 한 개의 기본수사, 한 개의 단위수사 혹은 기본수사와 단위수사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그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도 무한하고 범주도 무한하다. 즉 (2)에서 (2사) 이후에도 계속 범주는 확장될 수 있다.

(2) 가. 1개의 기본수사: 영(공),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나. 1개의 단위수사: 십, 백, 천, 만, 억, 조

다. 기본수사+단위수사: 삼십, 오백, 칠천, 일억, 일조

라. 단위수사+기본수사: 십일, 백오, 천칠, 만육

마. 기본수사+단위수사+기본수사: 이십오, 삼백오, 삼천오

바. 기본수사+단위수사+기본수사+단위수사: 삼백오십, 삼천오백

사. 기본수사+단위수사+기본수사+단위수사+기본수사+단위수사
 ……

(2)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한자어 정수 표현의 구성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2가)처럼 한 개의 기본수사로 만드는 방식이고 총 10개가 있다. 둘째는 (2나)처럼 한 개의 단위수사로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2다, 라, 마, 바, 사, …)처럼 기본수사와 단위수사의 조합으로 만드는 것이다.

중국어 정수 표현은 대체로 한국어의 한자어 정수 표현과 비슷하나 그 구체적인 구성 형식에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중국어에서 ‘零(0), 兩(2)’과 같은 보조수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5〉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정수 표현 구성 비교

숫자	한자어	중국어
10	십: 단위수사	十: 단위수사
11	십일: 단위수사+기본수사	十一: 단위수사+기본수사
20	이십: 기본수사+단위수사	二十: 기본수사+단위수사
21	이십일: 기본수사+단위수사+기본수사	二十一: 기본수사+단위수사+기본수사
100	백: 단위수사	一百: 기본수사+단위수사
1000	천: 단위수사	一千: 기본수사+단위수사
10000	만: 단위수사	一萬: 기본수사+단위수사
생략	일억: 기본수사+단위수사	一億: 기본수사+단위수사
200	이백: 기본수사+단위수사	二百(兩百): 기본수사(보조수사)+단위수사
2000	이천: 기본수사+단위수사	兩千: 보조수사+단위수사
20000	이만: 기본수사+단위수사	兩萬: 보조수사+단위수사
101	백일: 단위수사+기본수사	一百零一: 기본수사+단위수사+보조수사+기본수사
1001	천일: 단위수사+기본수사	一千零一: 기본수사+단위수사+보조수사+기본수사

〈표 5〉에서 보듯이 100 이하의 정수 표현은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는

같으나 100부터 차이가 생긴다. 숫자 ‘100, 1000, 10000’을 표현할 경우 한국어 구어에서는 ‘일’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백, 천, 만’으로 표현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일’이 나타나고 ‘一百, 一千, 一萬’처럼 표현한다.¹²⁾ ‘200, 2000, 20000’을 표현할 때 한국어 한자어는 기본수사 ‘이’를 사용하여 ‘기본수사+단위수사’의 형식으로 일관되게 표현하는 반면, 중국어는 다소 불규칙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십(二十), 이백(二百)/양백(兩百), 양천(兩千), 양만(兩萬)’과 같이 기본수사 ‘이’와 보조수사 ‘양’을 불규칙하게 사용한다.

중국어 정수 표현에는 ‘零’의 사용이 가장 특징적이다. 중국어에서 숫자 ‘101, 1001’을 말할 때 중국어 ‘一百零一, 一千零一’이라고 하지만 한국어 한자어 ‘백일, 천일’로 한다. 이는 중국어에서 보조수사 ‘零’이 있지만 한국어에서 보조수사가 없기 때문이다.¹³⁾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서수 표현(序數表現) 대조

서수 표현은 사람이나 사물, 그리고 일의 순서나 등급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서수 표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 6>과 같이 수사와 접사에 의해 표현된 것이다.

12) 한국어 문어에서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서 ‘일’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숫자를 정확히 명시해야 할 경우 단위수사 앞에 ‘일’을 더 붙이는 것이다. 또한 북한어에서는 ‘일백, 일천, 일만’으로 쓴다. 그러나 ‘억, 조’ 단위로 올라가면 남북한 공히 ‘일억, 일조’의 표현이 사용되고 ‘억, 조’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없다.

13) 보조수사 ‘零’은 숫자 ‘0’과 다르다. 아래 (가)에서 보듯이 ‘0’ 두 개가 있지만 실제로 (나)처럼 읽지 않고 (다)처럼 읽어야 한다.

가. 1001

나. *一千零零一

다. 一千零一

〈표 6〉 수사와 접사에 의한 서수 표현

한국어	고유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흔아홉째
	한자어	제일, 제이, 제삼, 제구십구, 제구백구십구, …
중국어		第一(제일), 第二(제이), 第九十九(제구십구), …

한국어의 고유어 서수 표현은 ‘둘, 셋, 넷’ 등의 정수에 ‘차례’의 의미를 지닌 접미사 ‘-째’를 붙여서 만든다. 그러나 ‘첫째’의 경우 보충법을 적용해서 ‘처음’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 ‘첫-’에 ‘째’를 붙여서 만든다. 고유어 정수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고유어 서수 표현도 첫째부터 아흔아홉째까지만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의 한자어 서수 표현은 ‘일, 이, 삼’ 등에 접두사 ‘제-’를 붙여서 만든다. 한자어 정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한자어 서수 표현도 무한하고 고유어 서수 표현처럼 보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어의 서수 표현은 일반적으로 정수 앞에 접두사 ‘第(제)-, 初(초)-, 老(노)-’, 정수 뒤에 접미사 ‘-等(등)’을 붙여서 만든다.

- (3) 가. 第一(제1), 第二(제2), 第三(제3), 第五十(제50)
 나. 一等(1등), 二等(2등), 三等(3등), 十等(10등)
 다. 初一(1일), 初二(2일), 初十(10일), *初十一(11일)
 라. *老一(첫째), 老大(첫째)
 마. 老二(둘째), 老三(셋째), 老幺(막내), 老小(막내)

(3가, 나)처럼 ‘第, 等’은 모든 정수와 결합이 가능하나 (3)처럼 일수(日數)를 나타내는 ‘初’는 1부터 10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初’와 같이 쓰지 않는다. 가령 ‘初十一’은 틀린 표현이다.¹⁴⁾ ‘老’는 형제들의 순서를 나

14) 중국과 한국은 모두 한 달을 초순·중순·하순으로 나누기 때문에 초순(初旬)을 넘

타내는 데에 쓰인다. 이때 정수 ‘一’은 쓰이지 않는다. (3라)처럼 보충법을 적용해서 형제자매 중의 첫째를 ‘老一’을 대신해 ‘老大’로 표현하며 (3마)처럼 막내를 ‘老幺’ 혹은 ‘老小’로 부를 수 있다.

수사와 접사에 의한 서수 표현 외에는 수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순서나 등급을 나타낼 수도 있다.

- (4) 가. 급(級), 등급(等級), 순위(順位), 학년(學年), 학기(學期), 반(班),
 판(版), 위(位), 등(等), 호(號), 회(回), 차(次), 권(卷), 집(輯)
 나. 1급, 1등급, 1순위, 1학년, 1학기, 1반, 1판, 1위, 1등, 1회, 1차
 다. 번째: 다섯 번째, 삼십 번째

(4가)의 명사(의존명사 포함) 앞에 수사가 오는 (4나)의 구성으로 서수 표현을 할 수 있다. ‘1급’은 사전에서 ‘여러 개의 등급 가운데 제일 위의 등급’으로 뜻풀이하고 ‘첫 번째 등급’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4가)와 같은 명사 앞에 오는 수사는 한자어 수사이지만 (4다)의 ‘번째’ 앞에 오는 수사는 숫자가 작을 때 고유어 수사가 쓰이고 숫자가 커지면 한자어 수사가 쓰인다.

한국어에서 수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서수 표현을 할 때 수사 앞에 접두사 ‘제(第)-’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사 앞에 ‘제-’를 붙이면 아주 어색하다.

- (5) 가. (제)75차 대회, (제)3회 회담, (제)1판 인쇄, (제)3권, (제)3집¹⁵⁾,
 (제)1연습실, (제)1병원, (제)2회의실

어가서 ‘초’를 붙이면 어색하다.

15) 학술지 혹은 시집, 소설집 등 문화 작품의 ‘권, 집’의 경우이다.

나. ^{??}{제19세기, 제3분기, 제1순위, 제2위, 제3등, 제1기¹⁶}

다. ^{??}{제1급, 제1등급, 제1학년, 제1학기, 제1반}

(5가)의 경우 ‘제-’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경우이다. ‘제-’가 사용되는 일이 일반적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구성도 가능하다. (5나)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를 붙이지 않는다. 특히 구어에서 ‘제-’와 같이 사용하면 더욱 어색하게 느낀다. (5다)의 경우 ‘제-’와 결합하지 않는다. 이에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 사용으로 본다.

중국어에서도 수사와 접사를 통하여 표현되는 서수 표현 외에는 수사가 (6가)와 같은 명사와 결합하여 순서나 등급을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어와 달리 (6나)처럼 수사가 명사와 결합할 때 수사 앞에 접두사 ‘第-’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班(반)’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수사 앞에 ‘第-’를 붙일 수 없다. (6다)에서 보듯이 ‘一班’은 되지만 ‘第一班’은 안 된다.

(6) 가. 學期(학기), 版(판), 級(급), 位(위), 回(회), 次(차), 屆(회)

나. (第)一學期, (第)一版, (第)一級, (第)一位, (第)一回, (第)一次,
(第)一屆

다. 一班, *第一班

이 외에는 (7)처럼 수사 없이 서열이나 순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長-’과 ‘次-’와 같은 말은 제한된 어휘에서만 쓰이고, 수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 순서를 표현할 수 없다.¹⁷⁾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7)을 서수 표현으로 보지 않는다.

16) ‘순위’와 ‘기’는 ‘제-’를 붙이면 어색하지만, 간혹 ‘제1순위 청약자, 제8기 졸업생’와 같이 ‘제-’를 붙여 쓰기도 한다.

17) 중국어에서도 ‘장남, 차남’과 같은 말이 쓰이나 이를 서수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 (7) 가. 고유어 접두사: 막-(막차, 첫- 첫날, 만- 만며느리)
 나. 한자어 접두사: 장(長)- 장남, 차(次)- 차남

또한 (8)처럼 어떤 범위에서 특정한 상대적 순서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서수 표현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순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순서이며 순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서수와 다르다. (9)와 같이 설명 순서를 나열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들은 서수 표현보다 단지 순서 나열에 쓰인 표기일 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모두 서수 표현으로 보지 않으며 중국어의 경우도 같다.

- (8) 상(上), 중(中), 하(下), 수위(首位), 꼴찌, 차등(次等), 말등(末等)
 (9) 가. 한글 가나다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
 나.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
 다. 로마자 자모: A, B, C, D, E, F, G, ...
 라. 로마자 숫자: I, II, III, IV, V, VI, VII, ...
 마. 십천간 순: 갑(甲), 을(乙), 병(丙), ...

이상과 같이 한·중의 서수 표현 방법에는 (10)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10나)의 방법은 서수 표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수 표현도 가능하다.

- (10) 가. 수사와 접두사의 결합
 나. 수사와 명사의 결합

(10나)의 방법은 서수 표현과 양수 표현 모두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서수 표현인지 양수 표현인지 문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1) 서수 표현

- 가. 3학년, 3반, 15세기, 7급 공무원, 308호
- 나. 식당은 이 건물의 3층에 있어요.
- 다. 교과서 140쪽을 펴보세요.
- 라. 3차 산업혁명을 지나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12) 양수 표현

- 가. 올해 4차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 나. 건물이 3층을 완성했다.
- 다. 논문은 140쪽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 라. 우리 측과 북측 수석 대표가 총 4차 접촉을 했다.

(11가)에서 수사(數)와 명사(名詞)인 ‘학년, 반, 세기, 급, 호’의 결합은 모두 서수 표현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나 (12가)의 명사 ‘차례’는 양수 표현만 할 수 있고 서수 표현은 할 수 없다. 명사 ‘층, 쪽, 차’의 경우 (11나, 다, 라)의 ‘3층, 140쪽, 4차’는 ‘제3층, 제140쪽, 제4차’와 같은 의미로 서수 표현인 반면 (12나, 다, 라)의 ‘3층, 140쪽, 4차’는 양수 표현으로 봐야 하며 이런 경우 ‘제’를 붙일 수가 없다.

중국어의 경우 대체로 한국어와 비슷하다. (13가)는 모두 서수 표현이다. (13나, 다, 라)는 모두 서수 표현이지만 (14가, 나, 다)는 같은 분류사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양수 표현이다. 또한 중국어에서 서수 표현인지 양수 표현인지 수사 ‘二’와 보조수사인 ‘兩’을 사용함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兩層, 兩頁, 兩次’는 모두 양수 표현이고 ‘(第)二層, (第)二頁, (第)二次’는 서수 표현이다.

(13) 서수 표현

- 가. 3年級, 3班, 15世紀, 5級水平, 308号

(3학년, 3반, 15세기, 5급 수준, 308호)

나. 餐廳在這棟樓的15層.(식당은 이 빌딩의 15층에 있다.)

다. 請翻到教科書的140頁.(교과서의 140쪽을 펴 주세요.)

라. 二次世界大戰(2차 세계대전)

(14) 양수 표현:

가. 這座樓一共15層.(이 빌딩은 총 15층이 있다.)

나. 這篇論文一共140頁.(이 논문은 총 140쪽이 있다.)

다. 我已經修改了兩次了.(나는 벌써 두 번을 수정했다.)

이상으로 한·중의 서수 표현을 살펴보았는데 표현 방법은 주로 두 가지가 있으며 각 한·중의 서수 표현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은 각자의 특징을 보였다.

3. 한국어와 중국어의 개략수 표현(概略數表現) 대조

개략수 표현은 확정된 수가 아니고 대략의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개략수 표현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 7>에는 수사에 의한 개략수 표현이다.

<표 7> 수사의 의한 개략수 표현

한국어	고유어	한둘, 두셋, 서넛, 너댓, ...
	한자어	이삼, 오륙, 이삼십, 삼십여, 약 백, ...
중국어		兩三(이삼), 五六(오륙), 二三十(이삼십), ...

수사로만 표현되는 한국어 고유어 개략수는 수량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대개 2개 혹은 3개의 고유어 수사를 연이어 사용하여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는 고유어 수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형태를 사용한

다. 그러나 ‘댓, 여남은’은 좀 특수한 경우다.¹⁸⁾

수사로만 표현되는 한국어 한자어 개략수 표현은 한국어 고유어 개략수 표현보다 다양하다. 그 구성 방식을 자세히 보면 (15)처럼 세 가지가 있다.

- (15) 가. 2개의 기본수사: 이삼, 오륙, 칠팔
- 나. 2개의 기본수사+1개의 단위수사: 이삼십, 사오십
- 다. 2개의 단위수사: 천백, 천만¹⁹⁾

(15가)의 의미는 2개의 수사 중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며 (15나)의 ‘이삼십, 사오십’의 의미는 ‘이십에서 삼십까지, 사십에서 오십까지’의 범위에 서의 어느 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15다)는 특수한 경우이다. (15다)에서의 ‘천백’의 의미는 ‘천 또는 백’ 정도의 수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많은 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천만’도 이와 같다.

수사에 의한 중국어 개략수 표현은 (16)과 같다. 그중에서 (16가, 나, 다)는 한국어 한자어 개략수 표현의 (15가, 나, 다) 세 가지 방식과 같다. 그 외에 중국어 개략수 표현은 (16라, 마, 바)의 방식도 있다.

- (16) 가. 2개의 기본수사: 二三(이삼), 五六(오륙), 七八(칠팔)
- 나. 2개의 기본수사+1개의 단위수사: 二三十(이삼십), 三五十(삼십에서 오십)
- 다. 2개의 단위수사: 百十, 千百, 千萬, 萬千

18) ‘댓’은 ‘다섯쯤 되는 수’의 뜻이고 ‘다섯’은 1개 고유어 수사의 이형태로 하는 개략수이다. ‘여남은’ 언어 직관상 ‘열 남짓한’이란 뜻으로 ‘남은’을 수사 ‘열’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와의 결합으로 보아 파생어이다. 그 형성 원리가 어떻든 간에 그 의미는 개략수 표현이다.

19)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만천, 만백’도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다.

- 라. 1개의 단위수사+1개의 기본수사+1개의 단위수사: 百八十, 千八百, 萬八千
- 마. 3개의 단위수사: 千百萬
- 바. 보조수사: 兩
- 사. 你來說兩句.(말씀 몇 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16라)의 ‘百八十’의 의미는 ‘팔십에서 백까지’ 정도의 수를 가리킨다. (16마)의 ‘千百萬’의 의미는 구체적인 숫자와 상관없이 ‘많은 수’를 가리키는 것이다.²⁰⁾ (16다, 라, 바)의 구성 방식도 거의 굳어진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다. (16바)는 중국어에서의 보조수사 ‘兩’으로 개략수를 표현하는 경우이다. ‘兩’은 개략수 표현을 할 때 수사 ‘二’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가령 (16사)에서 ‘兩句’는 말 두 마디라는 뜻이 아니고 ‘말 몇 마디’라는 뜻인데 이때 ‘二句’와 같은 말은 불가능하다.

수사로만 하는 한국어 개략수 표현 외에는 (17)처럼 수사와 접사, 수사와 일반명사, 수사와 의존명사, 관형사와 수사, 부사와 수사에 의해 표현된 개략수 표현도 있다.

- (17) 가. 수사+접미사: 수사+(-여(餘), -쯤)
- 나. 접두사+수사: {수(數)-, 기(畿)-}+수사
- 다. 수사+분류사+명사: 수사+분류사+{정도, 가량, 이내, 이하, 초과}
- 라. 명사+수사+분류사: {최소(最小), 최대(最大), 최소(最少), 최대(最多), 최저(最低), 최고(最高), 최하(最下), 최상(最上)}+수사+분류사
- 마. 수사+분류사+의존명사: 수사+분류사+남짓
- 바. 관형사+수사+분류사: {약, 한}+수사+분류사

20) 한국어의 ‘千百萬(천백만)’은 중국어에서는 ‘一千一百萬’으로 표현되고 개략수로 해석할 수 없지만, 중국어에서는 ‘千百萬’이 개략수로만 해석된다.

사. 부사+수사+분류사: 대략+수사+분류사

먼저 ‘수사+접미사’의 경우 (18)처럼 ‘수사+-여’와 ‘수사+-쫘’이 있다. (18나)에서 보듯이 ‘-여’는 고유어 수사와 어울리지 않으며 10 이하의 한자어 수사와 결합하면 매우 어색하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에 (18다)의 ‘-쫘’은 거의 한자어 수사와 고유어 수사 모두와 모두 결합이 가능하며 숫자의 크기에도 거의 제약 없이 사용된다.

(18) 가. 수사+-여: 이십여 개, 백여 개

나. *하나여 개/*한여 개/*일여 개, *다섯여 개/*오여 개, *스물여 개/
*스무여 개

다. 수사+-쫘: 다섯쫘, 오십쫘, 하나쫘

다음으로 ‘접두사+수사’ 경우 (19)처럼 ‘수+수사, 기+수사’가 있는데 이때의 수사는 모두 단위수사이어야 한다. 한자어인 ‘기-’와 한국어 고유어인 ‘몇’은 의미적으로 같으며 ‘수량의 많거나 적음’을 나타낸다. 한자어 ‘수-’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19) 가. 수(數)-+수사: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수조

나. 수천 년이라는 긴 역사

다. 기(畿)-+수사: 기십, 기백, 기천, 기만, 기백만, 기천만

라. 기천만 원의 거금

수사와 같이 사용하여 개략수 표현을 할 수 있는 명사들이 있는데 (20), (21)에서 보듯이 이런 명사들은 모두 한자어이다. (20)의 명사들은 수사의 선행을 요구하며 (21)의 명사들은 수사의 후행을 요구한다.

(20) 수사+분류사+명사

- 가. 정도(程度): 다섯 사람 정도
- 나. 가량(假量): 30리 가량
- 다. 이내(以內): 원고지 열 장 이내
- 라. 이하(以下): 18세 이하 관람 불가
- 마. 초과(超過): 30세 초과 지원 불가

(21) 명사+수사+분류사

- 가. 최소(最小): 최소 20년 징역을 선고 받게 된다.
- 나. 최대(最大): 피해액은 최대 10배 부과한다.
- 다. 최소(最少): 최소 5명이 사망했다.
- 라. 최다(最多): 최다 6연승을 기록했다.
- 마. 최저(最低): 최저 60점 이상은 맞아야 한다.
- 바. 최고(最高):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이다.
- 사. 최하(最下): 최하 5년부터 최고 12년까지이다.
- 아. 최상(最上): 최상 1등을 받았다.

‘수사+분류사+의존명사’의 구성은 (22)와 같다. ‘수사+분류사+남짓’은 ‘수사+접미사(-여)’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그 구성은 다르다. (22가)처럼 ‘남짓’은 수사와 분류사의 선행을 요구하고 분류사의 생략이 불가능하며 이때의 수사와 분류사는 한자어와 고유어를 모두 취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22나)처럼 ‘-여’는 ‘수사+-여+분류사’의 구성으로 써야 하며 이때의 수사는 고유어 수사를 취할 수 없다.

- (22) 가. 수사+분류사+남짓: 삼천 원 남짓, 서른 살 남짓, 열 명 남짓
 나. 수사+-여+분류사: 이십여 개, 백여 개, *하나여 개, *스물여 명

(23)은 ‘관형사+수사+분류사’의 구성과 ‘부사+수사+분류사’의 구성에 의

해 표현된 개략수 표현이다. (23가, 나)에서의 ‘약, 한’과 (23다)에서의 ‘대략’은 품사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때의 수사와 분류사는 한자어와 고유어를 모두 취할 수 있으며 ‘가량, 정도, -여, 남짓’등과 같이 쓸 수도 있다.

- (23) 가. 약+수사+분류사: 약 천 장 가량으로 된 원고
- 나. 한+수사+분류사: 초봉은 한 백만 원 정도 된다.
- 다. 대략+수사+분류사: 대략 삼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그 정원은 대략 백 평 남짓이었다.

수사로만 이루어진 중국어의 개략수 표현 외에는 (24)처럼 수사와 접사, 수사와 일반명사, 수사와 의존명사, 관형사와 수사, 부사와 수사에 의해 표현된 개략수 표현이 있다.

- (24) 가. 수사+접미사: 수사+{-多, -余, -來, -畿, -好畿, -把}
- 나. 접두사+수사: {上-, 成-, 數-, 好畿-, 畿-, 近-}+수사
- 다. 수사+분류사+명사: 수사+분류사+{左右, 上下, 以上, 以下, 以內}
- 라. 명사+수사+분류사:
{最少, 最低, 至少, 不足, 低于}+수사+분류사
{最多, 最高, 至多, 超過, 高于}+수사+분류사
- 마. 관형사+수사+분류사: 約+수사+분류사
- 바. 부사+수사+분류사: {大約, 大概}+수사+분류사

먼저 ‘수사+접미사’의 경우 (25)처럼 ‘수사+{-多, -余, -來, -畿, -好畿, -把’가 있다. (25가)에서 보듯이 수사 ‘十(10)’은 접미사 ‘-多, -余, -來, -畿, -好畿’와 모두 어울리지만 ‘-把’와 어울리지 못한다. 이는 ‘-把’는 다

른 접미사보다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百, 千, 萬’과만 같이 써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5나, 다)와 같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중국어에서 ‘-多, -余, -來, -畿, -好畿, -把’의 앞에 단위수사만 올 수 있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多, -余, -畿, -好畿’는 의미적으로 모두 앞에 오는 수사보다 많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來, -把’는 앞에 오는 수사보다 적거나 많다는 것을 모두 나타낸다. 예를 들어 ‘十多, 十余, 十畿, 十好畿’는 ‘십여’ 즉 십보다 많다는 뜻이고 ‘十來, 百把’는 ‘십 정도, 백 정도’의 뜻이고 앞에 오는 수사보다 적은 수와 많은 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25) 수사+접미사:

가. 十多, 十余, 十來, 一百來, 十畿, 十好畿, *十把, 百把

나. *{三多, 三余, 三來, 三畿, 三好畿, 三把}

다. *{十一多, 十一余, 十一來, 十一畿, 十一好畿, 十一把}

다음으로 ‘접두사+수사’의 경우 (26)처럼 ‘上-, 成-, 數-, 好畿-, 畿-, 近-+수사’가 있는데 이때의 수사는 한국어와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수사가 단위수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近-’은 이러한 제약이 없다. ‘上-, 成-, 數-’는 의미적으로 수량이 많다는 의미가 있어서 작은 숫자와 어울리지 않으며 ‘上-, 成-’은 백 이상의 단위수사 즉 ‘百, 千, 萬’ 등과 같이 쓸 수 있고 ‘數-’는 십 이상의 단위수사 즉 ‘十, 百, 千, 萬’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畿-’는 한국어의 ‘몇’과 비슷한 의미로 구체적인 숫자를 잘 모르거나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구체적인 수사를 대신해 쓸 수 있다. 접두사로 쓰인 ‘畿-’는 뒤에 단위수사가 오는 것을 요구한다. ‘好畿-’의 경우 ‘畿-’의 의미에서 수량이 많다는 의미인 ‘好’를 더하는 표현이다. ‘近-’은 뒤에 오는 수사와 ‘거의 가까움’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며 ‘일, 이, 삼’ 등 쉽게 파악

할 수 있는 작은 수와 같이 쓰지 않고 ‘백일’과 같은 정확한 수가 있는 수사
와도 같이 쓰지 않는다.

- (26) 가. 上+수사: *上三, *上十, 上百, *上一百零一, 上千, 上萬
 나. 成+수사: *成三, *成十, 成百, *成一百零一, 成千, 成萬
 다. 數+수사: *數三, 數十, 數百, *數一百零一, 數千, 數萬
 라. 畿+수사: *畿三, 畿十, 畿百, 畿百零一, 畿千, 畿萬
 마. 好畿+수사: *好畿三, 好畿十, 好畿百, 好畿百零一, 好畿千, 好畿萬
 바. 近+수사: *近三, 近十, 近五十五, 近百, *近一百零一, 近千, 近萬

(27)은 수사와 같이 사용하여 개략수 표현을 할 수 있는 명사들이다. 이
런 중국어 명사들도 한국어와 동일하게 (27가)처럼 수사의 선행을 요구하
는 것과 (27나)처럼 수사의 후행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 (27) 가. 수사+분류사+명사: 5个左右(다섯 개 정도), 30米上下(30미터 정도),
 100頁以上(100쪽 이상), 800字以下(800자 이하)
 나. 명사+수사+분류사: 最少100人(최소 100명), 最低10度(최저 10도),
 至少3次(최소 세 번), 不足1000字(1000자 미만), 低于60分(60점
 미만), 最多100人(최대 100명), 最高10度(최고 10도), 至多3次(최
 대 세 번), 超過1000字(1000자 초과), 高于60分(60점 초과)

(28)은 관형사인 ‘約’과 부사인 ‘大約, 大概’로 표현된 개략수 표현이다.
‘約, 大約, 大概’는 품사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거의 모든
수사, 분류사와 어울린다. 또한 (28가, 나, 다, 라)에서 제시된 접두사, 접미
사, 명사와도 같이 쓰고 개략적인 의미를 반복 표현할 수 있다.

- (28) 가. 約+수사+분류사: 約十萬余張(약 10만 장), 約2米左右(약 2미터 정도), 約三十多歲(약 30여 세)
나. 大約+수사+분류사: 大約1000名乘客(탑승객 대략 1000명), 大約10歲上下(대략 10살 정도)
다. 大概+수사+분류사: 大概10多个人(사람 대략 10여 명), 大概176cm左右(대략 176cm 정도)

이 외에 (29)과 같이 수량의 의미가 내포된 어휘들이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표현들은 수사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 의미가 내포된 어휘를 통해 표현된 것이다. 이는 수량 표현을 어휘화한 결과이기도 한다. 수 표현을 다루는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어휘를 다루지 않는다.

- (29) 가. 몇, 몇몇, 여럿, 다수, 소수, 반수
나. 多少, 多數, 少數, 大多數

이상으로 한·중의 개략수 표현 방법을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한·중의 개략수 표현 방법에는 모두 수사로만 표현된 개략수와 수사와 접사, 명사, 관형사, 부사로 표현된 개략수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어 개략수 표현 방식은 한국어보다 더 다양하다. 중국어에는 보조수사 ‘兩’에 의한 개략수 표현이 특징적이고 한국어에는 한국어의 특유한 고유어 개략수 표현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IV. 결론

본고는 수사와 수 표현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한·중의 수사와 수 표현

체계를 각각 구축하였다. 수사 체계는 기존의 수사 체계와 달리 수사의 구성에 주목하여 구축하였으며 수사를 사용하여 어떤 특정한 수 범주를 표현하는 것에 주목하여 수 표현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다음에 한·중의 수 표현 중에 정수 표현, 서수 표현, 개략수 표현을 각각 자세히 대조하였다.

정수 표현에 관하여 한국어 고유어 정수 표현은 한 개 혹은 두 개의 기본수사를 순서대로 연이어 조합해서 만들며 한국어 고유어 정수 표현은 1~99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어 한자어 정수 표현은 고유어보다 그 구성 방식이 다양한 편이며 한 개의 기본수사, 한 개의 단위수사 혹은 기본수사와 단위수사의 조합으로 무한히 구성될 수 있다. 중국어 정수 표현은 대체로 한국어 한자어 정수 표현과 비슷하나 중국어에서 ‘零(0), 兩(2)’와 같은 보조수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구성 형식은 차이가 있다.

서수 표현에 관해서 한·중의 서수 표현 방법은 주로 수사와 접사의 결합, 수사와 명사의 결합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에서 한국어 고유어 서수 표현 즉 ‘첫째, 둘째’ 등은 한국어에만 있는 표현 방식이다. 한국어 한자어 서수 표현은 중국어 서수 표현과 같으며 모두 접두사 ‘제-+수사’의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 무한한 서수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중국어에는 접두사 ‘老-, 初-+수사’와 접미사 ‘수사+-等’의 방식이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한국어 서수 표현에는 일부 ‘수사+명사’의 앞에 접두사 ‘제-’를 붙이면 안 되지만 중국어 서수 표현에는 ‘第-’를 붙일 수 있다. 또한 한·중에서는 모두 서수 표현 표지가 없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문맥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개략수 표현에 관해서 한·중의 개략수 표현 방법은 모두 수사로만 표현된 개략수와 수사와 접사, 명사, 관형사, 부사로 표현된 개략수 두 가지가 있다. 수사로만 표현된 개략수는 한국어 한자어의 경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중국어도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개략수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중국어에서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 점에서 중국어 개략수 표현 방식은 한국어보다 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어에서 보조수사 ‘兩’에 의한 개략수 표현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고유어 개략수 표현도 있으므로 한국어 개략수도 중국어만큼 풍부하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중의 수 표현을 대조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의 한자어 수사와 중국어 수사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로 인해 오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사용상의 회피도 적지 않다. 본고를 통해 보다 자세한 한국어 교육 내용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분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2015.
- 강창석, 「국어의 數量 표현 문법 I-개념과 용어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문학지』 39,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pp.25-45.
- 김성규, 「국어 수사체계의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1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4, pp.420-432.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2011.
- 리우완잉, 「한국어 한자어 수 표현 구성에 관한 고찰」, 『형태론』 16-2, 박이정, 2014, pp.206-227.
- 최현배, 『우리말본』(제4판), 정음문화사, 1937/1971.
- 劉月華,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2004.
- 李玟雨, 「現代漢語數量表達研究」, 上海師範大學, 2001.
- 方緒軍, 『現代漢語實詞』,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0.

Abstract

Comparative Linguistic Study on Number Expression
in Korean and Chinese

Li Weiwei · Yi Seon-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ast the numerical expressions used in the Korean and Chinese numeral systems. The numerical expression in this paper is the quantity category expressed by the numerals. In the previous study, numerals and numerical expressions were both included in the numeral system. We constructed a microscopic numeral system of Korean and Chinese numbers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nstitution principle of the numerals. We also constructed a numerical expression system for Korean and Chinese numbers by expressing quantities using macroscopic numerals. The system includes basic numerals, unit numerals, and union numerals from the Korean numeral system, and basic numerals, unit numerals, auxiliary numerals, and union numerals from the Chinese numeral system. Korean and Chinese numerical expressions include integer expressions, ordinal expressions, and approximate numerical expressions. In this paper, the integer expressions, the ordinal expressions, and the approximate expressions used in the Korean and Chinese numerical expression systems are compared; the differences and common points between the expressions in each category are revealed.

Key Word : Korean, Chinese, numerals, the numeral expression, linguistic contrast

Li Weiwei

소속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전자우편 : vivi_lee@naver.com

이선웅

소속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전자우편 : anhhung@khu.ac.kr

이 논문은 2018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8년 6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6월 7일 게재 확정됨.